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Vol.57, No.7 (August 2007) pp.84-97

劍舞 服飾의 연원과 변천양상에 관한 연구

윤 지 원
서울여자대학교 의류학과 초빙교수

The Study on the Origin and Transition of Sword Dancing Costumes

Ji-Won Yoon
Invited Lecturer, Dept. of Clothing Science, Seoul Women's University
(2007. 7. 5 투고)

ABSTRACT

Dancing with weapons existed spontaneously when war and hunting were common, and sword dancing, as a dance for banquets, developed and changed in various forms.

In Korea, sword dancing was performed from the Three Dynasty Period, and in Joseon Dynasty, it was performed as court ceremony. The origin of the sword dancing, that has been performed from the Joseon Dynasty until now, and costumes for sword dancing isn't accurat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sword dancing costume of China, Korea's neighboring country, and that of Korea in the same period, and to find out the process of wearing military uniform: Jun-mo, Jeo-go-ri, Chi-ma, Gwae-ja, and Jun-dae, being settled as the sword dancing costumes of Korea in late Joseon Dynasty.

In China, sword dancing became famous in Han Dynasty, and in Tang Dynasty, it was the meridian of sword dancing with the most magnificent form. After the Song Dynasty, the sword dancing fades away.

In Korea, the sword dancing started as a mask dancing of children that Hwa-rang(bravery youth) in Shilla Dynasty started. After the Unified Shiila Period, the sword dancing of Tang Dynasty spread to Korea, with active interchange between the two countries. After the Corea Dynasty, the mask dancing of children faded and the sword dancing of Tang Dynasty changes into Korean form. It was incorporated into the court ceremony after the mid-period of Joseon Dynasty, and the costumes were settled as the military uniform, which are Gwae-ja, and Jun-dae on top of Chi-ma, and Jeo-go-ri, and Jun-moon the head.

Key words: sword dancing(검무), dancing costume(무용복), military costume(군장)

Ji-Won Yoon, e-mail: koy0328@unitel.co.kr

Ⅰ. 서론

무기를 이용한 무용은 전쟁과 수렵이 흔하던 시대에, 어느 민족에게나 자연발생적으로 존재하기 마련이다. 점차로 무용이 연희적 성격을 띠며 분화·발전됨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발전 혹은 변형되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劍舞이다.

원시시대 여러 민족 간에는 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 전쟁이 있으면 전쟁을 반영하는 무용도 생겨난다.[1]

우리나라에서 검무는 이미 삼국시대에 상연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후 조선시대에는 궁중의궤로써 공연되었다. 선행연구로는 우리나라 검무복식에 관하여 남후선(1997), 남미화(2002)의 논문이 있으며, 이 외 검무에 관한 연구들[2]이 있다. 그러나 조선시대로부터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상연되어 오고 있는 검무의 연원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며, 조선시대 검무복식에 전모와 괘자·전대를 착용하게 된 과정도 밝혀진 바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조선시대 후기 정착된 검무복식, 즉 전모·저고리·치마·괘자·전대의 군장을 하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밝히고자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검무복식에 대한 자료가 충분치 아니하여 주변국과의 비교 및 교류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되어, 고대로부터 우리나라와 교류와 접촉이 활발하였던 중국 검무 복식의 연원과 발달양상을 먼저 고찰해 보고, 이와 관련지어 우리나라의 검무 복식과의 교류와 변천양상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연구 범위는 우리나라는 검무에 대한 정확한 문헌 기록이 있은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이며, 중국은 검무가 유행했던 漢代부터 唐代까지이다.

연구 방법은 漢代로부터 唐代까지의 벽화, 화상석 등의 가시 자료에 나타나는 검무의 모습을 분석·고찰하고 고대 사료와 연구 논문 및 관련 문헌자료 연구를 병행하였다. 우리나라 검무는 고구려 고분벽화와 조선시대 각종 의궤, 도병, 풍속화의 가시자료와 三國史記, 高麗史, 東京雜記 등의 고대 문헌과 연구 논문 등의 문헌자료를 토대로 하여 검무의 발생부터 검무에 착용된 복식·군장을 고찰해 보고,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교류 및 검무복식의 변천·정착과정을 살펴보았다.

Ⅱ. 검무복식과 군장

우리나라 검무에 대한 最古기록은 고조선시대의 '동이지악 지모무 조시생야(東夷之樂 持矛舞 助時生也)', 즉 지모무라고 하는 창을 가지고 춤춘 것으로 보아 검무는 고조선시대부터 있었던 것으로 알 수 있다. 고대의 검무가 의식의 일부로서 행해진 것이라면 예술적 성향을 띠기 시작한 것은 삼국시대에 이르러서였다.[3]

또 일설에는 『東京雜記』에 '검무는 일명 검기무, 혹은 황창랑무(黃倡郞舞)라고도 한다. 신라의 황창랑이라는 화랑이 어린 나이에 적국인 백제에 들어가 검무를 추다가 백제왕을 찔러 죽이고 자신도 잡혀 죽은 것을 기린 무용으로, 그의 탈을 만들어 쓰고 추었다는 데서부터 검무가 시작되었다'고 한다.

일반적인 설은 '황창랑의 가면무로 시작된 검무가 고려시대를 거쳐 조선중기까지 전승되었다'[4]는 내용이다. 이에 가면동자무의 검무가 조선 중기 이후 가면무가 아닌 여성 舞人에 의해, 그리고 치마·저고리 위에 전모·괘자·전대의 군장을 착용하게 된 과정을 살펴보려 한다.

우선 우리나라와 잦은 교류와 접촉을 해 온 중국의 검무와 복식을 고찰하고, 우리나라의 검무와 검무복식과의 비교 및 교류에 의한 변천 양상을 고찰해 보려 한다.

1. 중국의 검무와 복식

1) 漢代 劍舞와 服飾

무기를 이용한 무용의 역사는 고대 先秦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春秋時代부터 秦漢代에 이르기까지 중국대륙에는 전투가 끊이질 않았고 무예를 단련하는 풍습이 성행했다. 그리고 청동검을 제련하는 기술이 발전하면서부터 사람들은 점차로 '劍'을 많이 차고 다니게 되었다. 漢代에는 이러한 패검(佩劍) 습속이 문인과 무인들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게

되면서 검무가 유행하게 되었다.[5]

검무에 관한 기록은 춘추전국시대부터 구체적인 실례를 찾아볼 수 있다. 『孔子家語』제2권 「好生」에 '子路가 군복차림으로 공자를 뵙고, 칼을 뽑아 劍舞를 추었다'[6]라고 되어 있다. 『史記』 「項羽本記」에 鴻門宴에서 유방을 죽이고자 항장(項莊)이 검을 뽑아 들고 춤을 추었는데, 이를 막고자 항백(項伯) 또한 검을 뽑아 對舞하였다는 고사가 기록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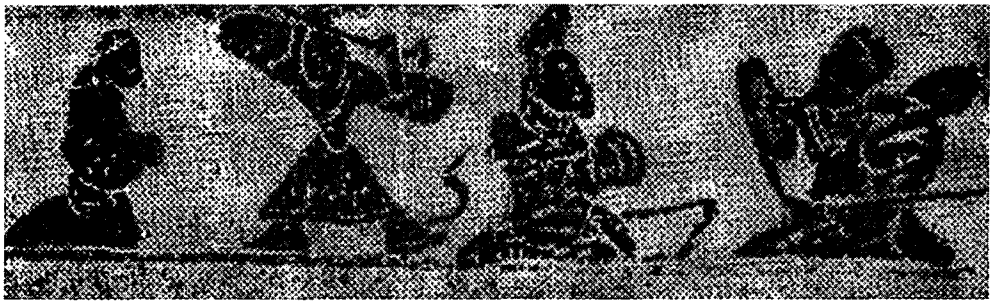
한대의 검무의 가시적 모습은 화상석 등에서 볼 수 있다. 〈그림 1〉 〈그림 2〉의 검무를 추는 인물들은, 머리에 관모를 쓰고, 소매가 넓은 긴 포와 통이 넓은 袴를 착용하였다.

〈그림 1〉은 『史記』 「項羽本記」항장의 고사를 漢代 화상석에 표현한 것으로, 소매가 넓은 장딴지 길이의 포와 袴를 착용하였다. 특별한 군장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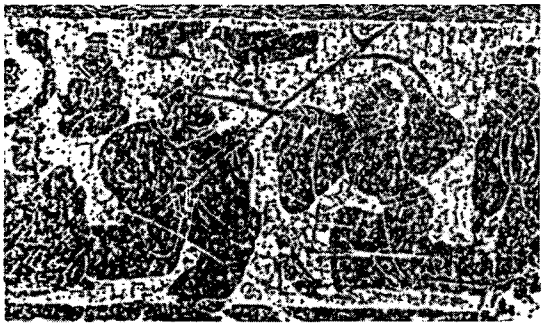
〈그림 2〉와 〈그림 3〉은 두 사람이 대련하는 모습의 쌍무로 검과 방패를 함께 사용하였는데, 특히 〈그림 2〉의 인물들은 소매가 넓은 포를 착용하였으며, 오른쪽의 인물이 착용한 포는 길이가 길어 아래에 착용한 하의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소매가 넓고 길이가 긴 포는 활동성을 필요로 하는 군장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아마도 평소에 입던 복식을 그대로 착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3〉의 인물들은 한 사람은 몸에 붙는 고습을, 오른쪽의 인물은 고습 위에 장딴지 길이의 포를 착용하여, 〈그림 1〉과 〈그림 2〉의 인물들과는 달리 좀 더 간편한 복장으로 보인다.

〈그림 4〉의 인물은 긴 검을 두 개 들고 있는 쌍검무의 모습이다. 〈그림 1〉, 〈그림 2〉와 마찬가지로, 소매가 넓고 길이가 긴 포를 착용하였다.

검무를 표현한 한대의 화상석과 문헌들을 토대로 분석해 보면, 긴 劍, 혹은 방패를 들었으며, 복식 형태는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 번째, 무용을 위한 특별한 복식이라기보다는 일반적인 남자의 복식인 긴 袍를 착용하였다. 두 번째, 고습을 착용하였다.



<그림 1> 漢代의 項莊舞[36]



〈그림 2〉 한대의 검무[37]

〈그림 3〉 한대의 劍舞, 陝北畵象[38]

〈그림 4〉 한대의 검무[39]

이후, 한대에는 외국과의 교류도 활발해져서 각종 百戱와 무용이 병합하였다. 검무도 점차로 백희의 영향으로, 잡기와도 병합된 다양한 형태의 연출도 보인다. 예를 들어, 단검을 이용한다든가, 抛接이나 擊丸등과 함께 결합한 모습도 보인다.

한대에는 검무를 출 때의 복식은 검무를 위한 특별한 복식은 아니었으며, 복식 형태는 두 가지로 집약된다. 첫째는 연회장소의 즉흥적 연회에서는 평소에 입던 긴 포 차림을, 둘째는 무예단련이나 백희의 일부로 공연할 때에는 활동이 편리한 고습 차림을 하였다.

2) 魏晋南北朝代의 검무와 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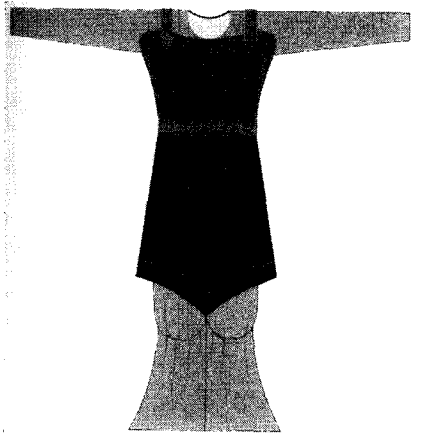
위진남북조대는 혼란시기로서, 漢代에 이어 검무의 명맥을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시기에는 주로 불교의 성행으로 인해 건무(巾舞), 서역으로부터 들어온 호무(胡舞)가 많이 추어졌고, 이에 반해 前代로부터 내려온 검무의 빈도가 낮아져 이에 대한 문헌기록이나 시각자료는 거의 없다.

그러나 검무는 고대로부터 추어지던 무용으로, 당대에 이르러 연희적 성격을 띠며 성행하였던 점을 보았을 때, 위진남북조대에도 어느 정도 전승되어 상연되었으리라 생각한다.

검무의 일종으로 추정되는 1점의 자료를 발견할 수 있었다. 〈그림 5〉는 남북조대의 漆盤에서 보이는 모습으로, 한대의 검무와는 차이가 있어 보인다. 우선 들고 있는 무기가 검이 아니라 창의 모습이며, 복식도 사지를 드러내는 고습차림의 간편한 복장이다. 상의에 어깨끈이 달린 조끼 형태의 옷을 착용한 것을 볼 수 있다. 이 모습은 남북조대의 군장인 양당을 덧입은 것으로 보인다.

양당은 〈그림 6〉의 위진남북조대 군복에서 볼 수 있듯, 고습 위에 몸통부분을 보호하기 위해 착용한 조끼형태의 옷이다. 즉, 〈그림 5〉의 무인은 고습 위에 양당을 착용하였다. 검무복식이 군장으로 변화하였다.

〈그림 5〉 남북조대의 검무[40]



〈그림 6〉 위진남북조대의 군복 및 양당[41]

3) 당대의 검무와 군장

당대의 검무는 남자들의 무예단련이나 즉흥적인

〈그림 7〉 唐代의 갑주[42]

〈그림 8〉 강조된 가슴
窄袖衫+裙+帔帛[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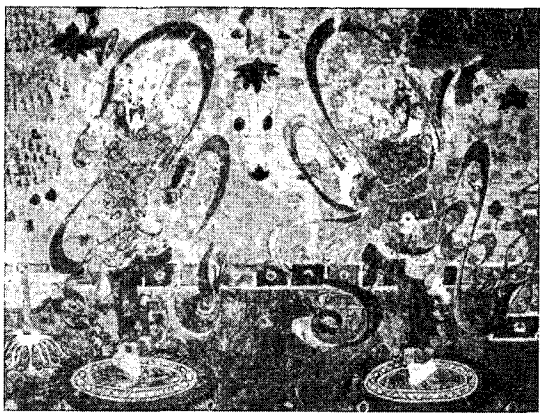
여흥을 돋우기 위한 남자들의 무용에서 좀더 대중화되어 연희 그 자체로 발전하였다. 즉, "健舞"의 하나로 일반적으로 여자가 軍裝을 하고 獨舞를 추었고 군사들이 집체적으로 군무를 추기도 했다.

『新唐書』「李白傳」에 裵旻의 검무가 唐代 三絶 중의 하나로 찬양받았음을 기록[7]해 놓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시대 무관들의 검무는 보편적으로 행해졌음을 알 수 있다.

公孫大娘의 검무에 대한 묘사에는 "검이 사방으로 빛나는 것이 신화 속의 后羿가 9개의 태양을 쏘아서 떨어뜨리는 듯하였다. 그녀의 힘찬 걸음걸이, 검과 몸의 회전 그리고 차가운 빛이 빛나는 것이 마치 신선 무리가 용을 타고 나는 듯하였다... (중략)... 맑은 빛을 모으는 것과 같았다."[8]는 표현으로 보아, 검을 빠르게 휘두르며 가볍게 회전하며 움직임을 알 수 있어, 서역의 무용 중 하나이며 빠른 회전을 특징으로 하는 호선무(胡旋舞)와 결합된 형태임을 암시한다. '9개의 태양', '차가운 빛이 빛나는 것', '신선무리가 용을 타는 것', '맑은 빛을 모으는 것 같았다'는 표현은 화려한 옷을 착용한 것을 묘사한 것으로 보인다.

검기무에 뛰어난 公孫大娘은 敎坊의 무인으로, 당대의 시인 두보가 그녀의 검기무를 소재로 시를 지었고, 草書로 유명했던 서예가 張旭 또한 公孫大娘의 劍器를 본 후 영감을 얻어 草書를 발전시켰다고 한다. 公孫大娘의 검기무 복식은 아름답게 개조한 군복이었으며, "玉貌錦衣"는 당시 모든 여자들이 좋아하는 의복이 되었다.[9]

錦衣가 어떤 모습이었는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림 7〉과 같은 당대의 갑주를 화려한 소재로 만들어 변형시킨 옷으로 추정된다. 또한 당대 여자복식은 〈그림 8〉과 같이 밀착과 노출 등으로 인한 관능미가 유행했던 시대였기에, 드레이프성이 좋은 소재로 만든 衫과 裙 위에 화려한 군장을 하였을 것으로 본다.



〈그림 9〉 군장을 한 호선무,
敦皇莫高窟 220굴 初唐[44]

또한 일설에는 검기무에 사용된 劍 대신 긴 巾, 혹은 장수의를 착용한 공막무가 검기무에서 그 연원을 찾을 수 있다고도 한다. 이것을 토대로 당대의 검무복식의 일면을 살펴 볼 수 있는 것이 돈황막고굴 220굴의 호선무의 모습인 〈그림 9〉이다. 머리에는 투구를 쓰고, 상의에는 아름답게 꾸며진 군장의 갑주를 연상시키는 옷을, 하의로는 드레이프성이 좋은 유연한 裙 형태의 하의를 착용하였다.

이들을 토대로 추정해 보건대, 당대의 검무가 연희적 공연형태로 정착함에 따라, 검무복식은 아름다운 색채의 비단옷 위에 장식성이 가미된 변형된 갑주를 착용하였던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당대는 각종 다양한 문물교류와 함께 무악이 발

달했던 시기이다. 외국의 문물교류도 잦았고, 예술 문화에 있어서도 다양한 문화들과의 융합과 수용을 통해 절정에 달했다. 검무도 외국과의 교류를 통해 다양화되기 시작했다. 서역에서 전해진 혼탈무와 융합되어 '검기혼탈'이 탄생하였다.

중국의 검무는 항우의 고사에서 추측해 볼 수 있듯, 무술과 관련하여 수련 혹은 여흥으로서 장수들에 의해, 즉 남자들에 의해 추어지던 춤이 당대에 연희적 성격으로 발전하면서, 교방의 여인들이 군장을 하고 추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복식에서도 한대에는 장수들끼리의 연회 자리에서 즉흥적인 무용이었으므로, 검무 복식에 대한 뚜렷한 복장이 정해져 있지 않았으며, 당대에 이르러 연희적 성격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군장형식의 검무 복식의 체계를 갖추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송대까지 성행하였던 검무는 일찍이 중국 대륙 내에서 유실되었다.[10]

2. 한국의 劍舞와 군장

1) 고구려의 검무와 군장

고구려의 무악이 발달하였음은 中國 史書 등의 기록에서도 자주 등장하는데, 고구려의 무악과 중국의 무악이 접촉한 예로 『後漢書』「東夷列傳」에 '武帝가 고구려에 북과 管樂器와 樂工을 하사한 기록'[11]이 있다. 특히 漢 武帝 때 서역의 길이 열리면서 비파와 공후를 비롯하여 胡舞와 胡樂이 고구려에 수입되었을 뿐만 아니라 고구려의 무악이 隋와 唐의 무악에 영향을 미쳐 隋나라의 七部伎와 九部伎, 그리고 당태종 때의 十部伎에 편입되어 고려기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졌을 정도로 발달했다.[12]

고구려의 무악으로서 당대 십부기의 하나로 자리 잡은 「高麗樂」은 唐代에 광범위하게 전파되어 樂舞人이 아닌 고관과 귀인들까지도 고려악에 능할 정도였다. 이백의 「高句麗」라는 시에 "翩翩舞廣袖, 似鳥海東來..."의 고려악에 대한 묘사를 보더라도 중국 내에서의 고려악의 흥행 정도를 추정해 볼 수 있다.[13]

이경진은 "삼국시대에 들어오면서 검무는 잦은 전쟁 속에서 문화를 발전시켜야 했던 고구려를 기점으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삼국 중 가장 먼저 검무를 행한 고구려는 문헌적 기록과 벽화를 통한 다양한 춤 모습을 전개시켰을 때, 4세기 무렵으로 추정되는 검무도를 통해서 검무의 성행과 대중화된 형태를 볼 수 있으며 고구려에도 4세기 이전에 검무가 연희차원으로까지 발전된 단계에 있었다."[14]고 하였다.

신채호의 『조선상고사』에 '태조 때에 와서 매년 3월과 10월 「신두수」大祭에 모든 군중들을 모아 놓고 혹 칼춤도 추고, 혹 활도 쏘고, 혹 깨끔질도 하고, 혹 택견도 하고, 혹 강의 얼음을 깨고 물 속에 들어가 물싸움도 하며, 혹 가무를 연주하여 그 실력을 보고, 혹 대규모 사냥시합을 하여 그 쏘아 잡은 것의 많고 적음도 보는 등 여러 가지 내기에서 승리하는 자를 「선배」라 불렀다.'[15] 고 하며, 검무가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 외에도 고구려의 악무는 백제나 신라보다 훨씬 앞서 있었고 악무의 종류도 독무, 쌍무, 군무가 있었으며 그 놀이 형태는 탈춤, 칼춤, 창춤, 북춤 등이 있었다.[16]

〈그림 10〉 고구려의 劍舞(안악3호분)[45]

고구려 검무에 대한 시각자료로는 〈그림 10〉의 고구려 안악3호분의 행렬도 벽화 중에서 볼 수 있다. 오른손에는 칼을, 왼손에는 활을 들고 있는데, 머리에는 무후책(無後幘)을 쓰고, 깃과 수구·밑단에 붉은색 선을 댄 유(襦)와 고(袴)를 입고 화(靴)를

신고 있다. 그림 속의 인물이 고구려의 기본복식을 하고 있는데, 고구려 기본복식은 冠帽·襦·袴 차림으로 풀을 밟고 말을 달리는데 편리한 형태로 발달했다. 즉, 고구려의 군장은 특별한 복식이 아닌 유·고 형식이다.

고구려 검무복식에 대한 별다른 기록도 없이 단한 점의 모습으로 단정짓기는 어려우나, 군인에 의해 추어진 것을 미루어 볼 때, 용맹함을 나타낼 수 있는 군장(軍裝)을 하였을 것으로도 추정해 볼 수 있다.

고구려 군복의 모습을 추정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 군복의 기원에 대해 박두이는 "半袖短上衣를 맥수라 칭하며, 맥수는 알타이족의 한 갈래인 맥족에 의하여 자생한 기마, 수렵의 융복이며 방한의이며, 이는 맥족의 지리환경 및 생활환경에 의해 자연 탄생된 것"[17]이라고 하였다.

조우(鳥羽) 삽식은 북방유목민족의 새 숭배사상에서 온 것으로, 용맹을 뜻하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또한 『通典』에 고구려의 악공인이 紫羅帽에 조우를 꽂았다고 하였다.[18] 이에 고구려의 검무 복식에 조우관을 썼을 가능성도 엿볼 수 있다.

우리나라 기본복식인 유고는 중국의 기본복식과는 달리 말을 타고 달리는 등 활동에 편리한 복식이다. 이에 삼국시대 검무복식은 특별하게 갖춘 군장이라기보다는 유고 형식을 취한 기본복식 또는 반소매옷인 맥수를 착용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새의 깃털을 꽂은 절풍 혹은 책 등을 착용하였을 것으로 사료된다.

2) 신라와 통일신라의 검무와 군장

『東京雜記』「人物」의 官昌에 관한 내용을 보면, '어려서 화랑이 된 관창은 나당연합군이 백제를 칠 때, 용맹하게 끝까지 맞서 싸우다 전사하였다. 이후 을축년(1385), 이첨(李詹)이 계림에 객으로 갔을 때, 부윤 배천경이 향악을 베풀었는데, 가면을 쓴 童子가 뜰에서 칼춤을 추었다.[19]' 이에 대해 황창랑 무에 대한 이야기가 꾸며낸 것임을 설명하고, 관창을 기리기 위한 무용으로 이야기하고 있다.[20]

이를 통해 신라의 검무는 동자 가면무임을 알 수 있다. 정병호[21]도 "고려말 문인 이담과 이유원의 시를 통해 볼 때, 고려 말년까지도 검무를 출 때 가면을 쓰고 연출했다"고 하였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신라 검무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시각자료는 남아 있지 않다. 다만 어린 화랑들이 가면을 쓰고 추었으며, 軍裝을 하였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三國史記』「新羅本紀」에, 왕명으로 악무를 가르치게 하는 내용으로 미루어볼 때, 신라의 무악이 전업적인 기술인에 의해 분업화되고 발전되었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

김말애에 의하면, "통일 신라가 당 문화를 수입하면서 예술에 큰 변화를 가져왔으며, 악기가 다양해지면서 음악과 무용도 발전하였고, 무용복식도 통일 전에 비해 훨씬 화려해지고 춤의 내용도 다양해졌다"[22]고 하였다.

신라의 복제(服制)는 고구려와 마찬가지로 襦·袴·袍 형식의 이속(夷俗)이었으나, 신라가 唐과 연합하면서 禮服과 부녀의 복식이 唐制化되었다.[23]

이들 정황으로 미루어 보아, 당대의 화려한 군장을 한 관능적 여성에 의해 연희되는 형식의 검무도 수입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고려말까지도 가면동자무 형식이 상연되었던 것을 미루어 볼 때, 唐의 검무가 통일신라시대에 수입이 되었다면 신라의 검무와는 별개로 상연되었을 것이다.

가면동자무 형식의 검무가 화랑들에 의해 추어졌던 것으로 미루어 볼 때, 그에 따른 복식은 군장이었을 것이다.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이후의 군복을 고찰해 보면, 위용과 의장적 요소를 갖는 의장용 갑주 이외에, 부대를 표시하는 전투복 기능의 제복(制服)으로서, 금당(衿幢)을 채용하였다. 이는 군대조직의 기본단위인 당(幢)을 기준으로 이중 혹은 삼중의 깃[衿]에 색조를 넣어 표시하였던 제도이다.[24] 이 제복의 기본 형태는 유고(襦袴)이다. 즉, 화랑에 의한 가면동자무 형식의 검무복식은 유고 형식의 금당을 착용하였을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당에서 수입된 검무가 상연되었다면, 이에 따른 복식은 당의 검무복식과 유사한 형태였

을 것이다. 즉, 관능적 여성미를 드러내는 가슴을 드러내는 衫 위에 長裙을 입고, 화려한 갑주를 착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3) 고려시대의 검무와 군장

고려시대에는 음악이나 무용도 존중되어 과거의 것을 계승하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였다. 특히 문종에 이르러서는 점차 중앙집권체제가 확립되고 무용과 음악이 크게 일어났으며, 예종 때에는 문화적으로 발전된 宋과 친선책을 펴서 선진문화를 받아들이고자 新樂과 大盛雅樂을 들여왔다. 고려시대의 무용은 신라시대부터 전해 내려온 팔관회의 가무백희로부터 화려한 향악정재와 그것이 발전한 궁중무용으로, 또 당나라에서 전해진 당악정재로까지 화려한 발전을 했다. 곧 민속무용의 몇 가지가 발전하여 궁중의 俗樂呈才가 되었으며, 이후부터 궁중무용과 민속무용으로 그 궤도를 달리하며 새로운 시대 조선으로 맥이 이어지게 되었다.[25]

고려의 검무는 삼국시대의 검무를 계승한 것이다. 고려시대에 들어서 검무는 처용무와 함께 추었으며 궁중에서도 행해졌으며, 고려말의 문인 이담또는 이유원 등의 시에 의하면 검무가 가면을 쓰고 연출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그 후 오랫동안 탈을 쓰고 춤을 추었다.[26]

고려시대 궁중정재는 당악정재와 향악정재로 나뉜다. 당악은 중국으로부터 수입된 唐 형식의 무악을, 향악은 원래 우리나라의 무악과 수입된 무악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화 된 것을 말한다.

고려의 당악은 통일신라 이후부터 수입되어 우리나라 고유의 음악과 양립하였다. 문무왕 4년(664) 3월에 '星川과 丘日 등 28인을 웅진부성(熊津付城)에 보내어 당악을 배우게 하였다'[27]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통일신라 때 이미 당악이 전래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고려시대의 당악정재나 향악정재 항목에 검무는 들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앞에서 『東京雜記』의 내용을 들어 이미 언급하였듯이, 삼국시대부터 추던 동자가면무 형식의 검무는 고려말에 추어지다가 차츰 쇠퇴해 버렸을 것이다.

조선시대 이래로 상연되는 검무 형식과 검무 복식은, 삼국시대로부터 전승되어온 가면동자무보다는 당대 검무 형식에 더 가깝다. 우리나라에 당대의 검무가 수입되었다면, 唐風이 한창 유행하였던 통일신라 때 우리나라에 수입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나, 고려 궁중정재에 검무가 들어 있지 않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민가에서 연희되며 토속화되어 갔을 것으로 추정된다.

歐陽予倩에 의하면, "조선의 검기무는 송나라 때 전해진 것이라고 한다.....검기가 조선에 전래되어서 변화가 일어났겠지만, 당대 공손대낭이 춘 검기무가 쌍검을 가지고 춤을 추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28] 즉 당 형식의 검무가 늦어도 고려시대에 우리나라에 전래되어 정착·변화되어 갔던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唐 형식의 검무복식은 襦裙 위에 화려한 갑주 형식이다.

앞에서 언급한 여러 정황으로 보아, 고려시대 검무는 동자가면무 형식과 당 형식의 검무가 모두 상연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들 검무의 복식은 군장을 하였을 것이다. 고려시대 군복은 관복, 갑주와 일반 군복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宣和奉使高麗圖經』을 통해 본 무관들의 복장을 정리해 보면, 毬文錦袍와 金花大帽, 검은 가죽과 쇠로 만들고, 무늬가 있는 錦으로 꿰맨 介冑, 襦袴 위에 갑옷과 투구, 袍와 幞頭 등이다.[29]

그러나 궁중정재가 아닌 민간에서 연희되며 토속화되었다고 볼 때, 갑주를 착용하였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더군다나 『高麗史節要』 卷四 靖宗容惠大王 九年에 "禁中外錦繡 銷金 龍鳳紋 綾羅 衣服", 즉 '온 조정과 백성들 모두 화려한 소재의 의복을 금한 것'을 보아도 궁중정재도 아닌 민간향연에서 화려하고 값비싼 소재로 된 갑주를 착용하기는 힘들었을 것으로 본다. 또한 갑주는 무게가 많이 나가 움직임에도 제약이 많으므로 착용하였을 가능성은 적다.

민간에서 추던 검무복식으로 착용되었을만한 군장으로는 위장(衛仗)들의 복식을 들 수 있다. 이들의 복식 중 삼국시대와 조선시대 검무 복식의 연결선상에서 가능성 추론해 보고자 한다. 『高麗史』에

근거하여 군복을 분석해 보면, 의장복 중에 凡法駕衛仗의 옷인 紫羅冠에 緋羅背子, 綠羅汗衫, 紫繡包肚이다. 배자와 포두 모두 소매가 없는 옷으로, 그 모습의 일면을 〈그림 11〉을 통해 볼 수 있다.

〈그림 11〉 고려동경 속의 배자[46]

박두이도 '우리나라 군복의 기원이 삼국시대 맥수라는 반비의에서 출발하여 고려시대 군복은 배자 양식으로 이어져 왔으며, 조선시대에는 전복이 무관의 군복으로 착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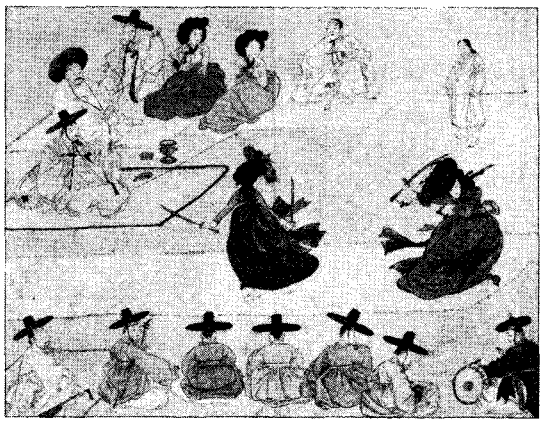
즉, 고구려의 군복인 반소매 옷 맥수가 고려시대의 배자로 이어졌으며, 조선시대 검무복식으로 괘자가 착용되었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고려시대의 검무 복식으로서 군복의 소매 없는 옷인 배자가 채택되어 착용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즉, 당 형식의 검무가 수입되어 고려시대에는 그 복식으로 유와 군 위에 소매 없는 옷인 배자를 착용하였을 것으로 사료된다.

4) 조선시대의 검무와 군장

조선조 초기에는 검무에 대한 언급이 없어, 그 형태를 알 수 없다가 중엽을 지나 궁중행사에 쓰이던 의궤와 풍속화 등을 통해 검무의 모습을 파악할 수 있다.

조선 중기 이후 의궤를 통해 볼 수 있는 검무의 모습은 삼국시대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던 검무와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 삼국시대의 검무는 가면무로서, 화랑의 힘차고 씩씩한 기상을 표현한 반면 조선 중기 이후 의궤와 향연도 등에서 볼 수 있는 검무는 색기가 가득한 모습이다.



〈그림 12〉 혜원의 풍속화 중의 雙劍對舞 18세기[47]

〈그림 13〉 신관도임 연회도의 검무 19세기[48]

조선시대 검무의 가시 모습 중 제일 이른 것이 혜원의 풍속화(그림 12)이다. 〈그림 12〉는 쌍검무의 모습으로 공작모를 단 전모를 쓰고, 치마·저고리 위에 괘자와 전대를 착용한 모습이다. 괘자는 겉은 흑색, 안은 붉은색을 댄 것으로 보이며, 옆선은 짧은 트임, 뒷중심선은 긴 트임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13〉도 쌍검무의 모습으로, 19세기의 작품이다. 치마·저고리 위에 네 자락 모두 긴 트임이 있는 괘자·전대, 머리에는 전모를 착용한 모습이다.

조선시대 각종 의궤에는 보통 여자 두 명 혹은 네 명이 전립을 쓰고 괘자를 입고 쌍검을 들고 춤

〈표 1〉 조선시대 의궤를 통해 본 검무복식 구성

의궤		복식 구성
『園幸乙卯整理儀軌』(1725)	圖式	검무를 추는 모습의 그림 - 戰笠, 掛子, 戰帶 등
『己丑進饌儀軌』(1829)	圖式	戰笠, 紫的紗掛子, 戰帶, 筒箇, 環刀, 藤鞭
	工令	戰笠, 鴉靑甲紗掛子, 紅綃裳, 藍戰帶, 草綠鞋
『戊申進饌儀軌』(1848)	圖式	戰笠, 紫的掛子, 金香袂袖, 藍戰帶
	工令	戰笠, 鴉靑甲紗掛子, 紅綃裳, 藍戰帶, 草綠鞋
『丁丑進饌儀軌』(1877)	圖式	戰笠, 鴉靑掛子, 金香袂袖, 藍戰帶, 草綠鞋
	工令	戰笠, 鴉靑甲紗掛子, 紅紗裳, 藍戰帶, 草綠鞋
『壬辰進饌儀軌』(1892)	圖式	戰笠, 鴉靑掛子, 金香袂袖, 藍戰帶
	工令	戰笠, 鴉靑甲紗掛子, 紅紗裳, 藍戰帶, 草綠鞋

을 추고 있다.

조선시대 검무의 모습을 알 수 있는 자료들로 1725년 『園幸乙卯整理儀軌』와 1829년 『己丑進饌儀軌』, 1848년 『戊申進饌儀軌』, 1877년 『丁丑進饌儀軌』, 1892년 『壬辰進饌儀軌』가 있다. 이밖에 도병(圖屛)들로는 1829년 순조기축진찬도병, 1848년 무신진찬도병, 1887년 정해진찬도병, 1901년 신축진연도병과 신축진찬도병이 있다. 이외에 혜원의 풍속화, 18세기와 19세기의 평양감사 향연도 등이 있다.

「정재도」검무악장 기록에서 관찰되는 검무 복식은 군장(軍裝)으로 기록하고 있으며 착용한 복식은 전립(戰笠)과 괘자(掛子)이다.[31]

의궤상에서 보이는 검무복식을 정리해 보면 다음 〈표 1〉과 같다.

여러 의궤들에 나타난 검무 복식의 변천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戰笠, 掛子, 戰帶를 착용하였다. 그리고 『己丑進饌儀軌』의 圖式에만 筒箇, 環刀, 藤鞭가 있고, 이후 등장하지 않는다. 『戊申進饌儀軌』부터는 金香袂袖와 紅色 裳이 추가된다. 掛子의 색도 紫色에서 鴉靑色으로 변화하지만, 옷의 형태는 변화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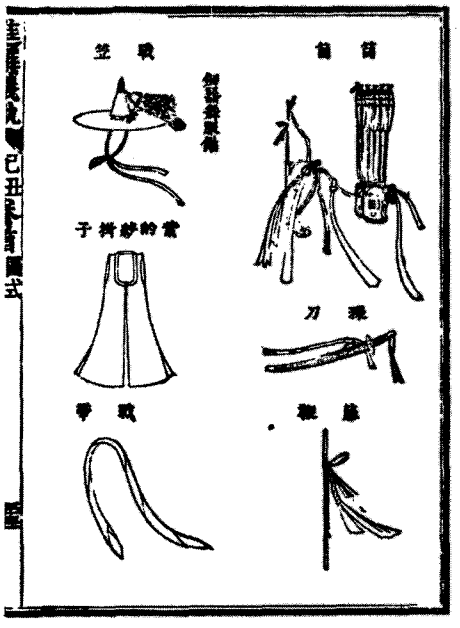
검무 복식 구성 중 戰笠은 주로 서북지방에서 착용되다 조선 중엽 이후 무관의 융복에 정식으로 채용되었고, 인조 5년 이후 문관과 사대부들도 착용하였는데, 품위가 높은 사람들은 모로 만든 전립에 공작미, 옥로 등의 장식을 달았다. 공작의 깃털은 조선 무관 전립의 장식품으로서, 전립에 공작털 하나만을 장식하거나 다발로 만들어 달았는데, 삼국시대로부터 내려온 새의 깃털장식과 용맹성의 연관성을 가진 고대의 조우삽식 풍습의 하나이다.[32]

괘자는 고려시대로부터 군장으로 착용된 배자에서 발전된 것으로, 조선시대에도 군장으로 착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트임이 있어 움직이면서 옷자락을 바람에 날리며 힘찬 율동의 미를 맘껏 표현할 수 있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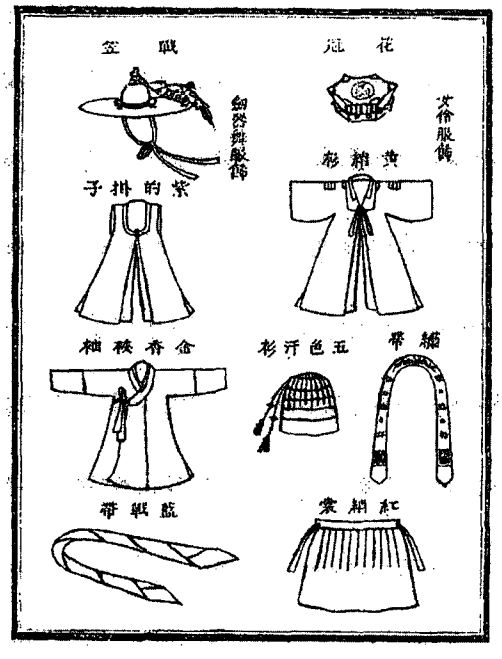
조선 후기 19세기부터는 廣場이나 마당에서 추던 것이 상업화 내지는 도시화됨에 따라 한층 공연 예술로 급속히 변화하여 춤판이 옥내로 들어오게 된다. 그리하여 부잣집 대청마루를 무대로 하는 좁은 공간에서 춤을 춤으로써 자연히 뛰는 동작이 없어지고 정적 지향의 춤이 형성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 춤은 사대부들을 위해 추는 것이었기 때문에 고상하고 우아하며 그러면서도 색기가 넘쳐흐르는 표현적 무용이 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양식화된 춤이 궁중정재에서 유입된 검무이다.[33]

순조28년(1828) 진작의궤에 의하면 두 사람의 무인이 高雲髻를 쓰고 石竹花를 그린 전복을 입고 각각 칼 두 자루씩 들로 상대하면서 무작을 짓는다고 하였다.[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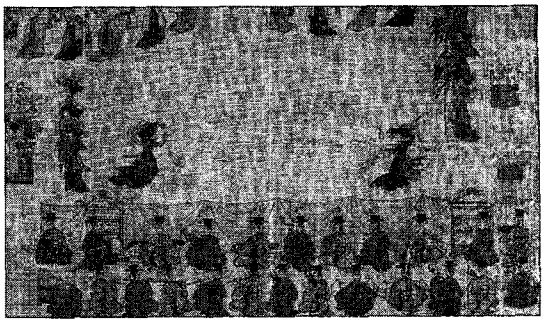
〈그림 16〉, 〈그림 17〉, 〈그림 18〉의 그림은 각각 19세기와 20세기 초의 모습이기는 하나, 옥내의 모습이 아닌, 궁중연회에서의 검무 모습이다. 〈그림 16〉의 무인들은 치마·저고리 위에 옆선과 뒤트임이 깊게 트인 괘자와 전대를 착용한 것을 볼 수 있으며, 괘자의 안감은 붉은색을 사용한 것을 볼 수 있다. 裳은 착용하지 않았다. 〈그림 17〉의 무인들은 치마·저고리 위에 협수와 괘자, 전대를 한 모습으로 역시 괘자의 안감은 홍색이다. 그리고 아래쪽의 서



〈그림 14〉 己丑進饌儀軌의 劍舞 圖式[49]



〈그림 15〉 戊申進饌儀軌의 劍舞 圖式[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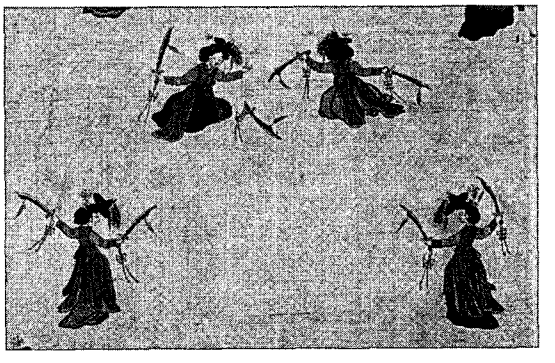


〈그림 16〉 순조기축진찬도병의 검무(1829)[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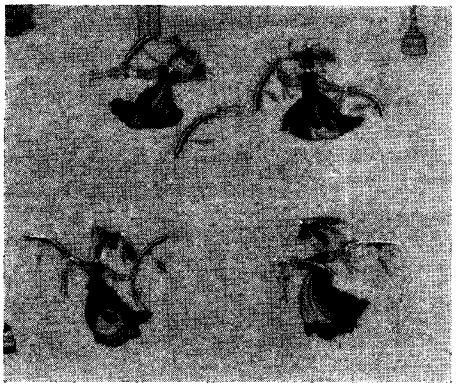
있는 무인들은 협수 안에 홍색 裳을 착용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戊申進饌儀軌』의 기록과 일치한다. 〈그림 18〉의 경우 치마·저고리 위에 협수를 입고, 옆선은 짧게 트이고 뒤트임이 깊게 트인 괘자를 착용하였다. 裳은 착용하지 않았다.

조선말 검무는 단검무로 변화되면서 1900년 순조 때 효명세자에 의해 궁중의 상연 종목으로 채택되었으며, 한편으로는 기생과 민간에까지 퍼져 유희무용의 한 부분이 되었다.[35] 순조 무자년 『進爵儀軌』 권1에 따르면, 피변관(皮弁冠)을 쓰고 첨수의(尖袖衣)를 입고, 칼을 들고 농검(弄劍), 연귀소(燕歸巢), 연풍대(筵風擡) 등의 순으로 춤추었다.

우리나라의 검무가 의식적(儀式的) 성격을 벗고 연희적 성격을 띠며 발전해 감에 따라 옷도 눈을 즐겁게 해 줄 수 있으며 착용이 간편한 군장인 괘자·전대, 무관의 상징인 전립을 착용하게 된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림 17〉 무신진찬도병의 검무(1848)[52]



〈그림 18〉 신축진연도병의 검무(1901)[53]

중국은 평상복과 고습의 형태에서 화려한 갑주의 변형으로 갔다가 쇠퇴한 반면, 우리나라는 유고 혹은 금당 등의 군장을 한 동자가면무에서 발전하였으나, 통일신라 이후 당형식의 검무가 수입되어 우리나라화되면서 군장의 상징인 전립을 쓰고 치마·저고리 위에 괘자, 전대를 착용하게 되며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Ⅲ. 결론

무기를 이용한 무용은 전쟁과 수렵이 흔하던 시대에 자연발생적으로 존재하게 된 검무는 연희적 성격을 띠며 다양한 형태로 발전 혹은 변형되었다.

중국에서는 漢代에 검무가 유행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때의 검무 복식은 평상복인 소매가 넓고 길이가 긴 袍를 착용하기도 하고, 활동이 편리한 고습을 착용하기도 하였으나, 검무 복식이 확립되어 있지는 않았다.

위진남북조대에 이르러 고습에 양당을 입은 형태도 볼 수 있으며, 당대에 검무의 전성기에 이르게 되며 가장 화려한 형태를 갖추게 된다. 즉, 관능미를 느낄 수 있는 드레이프성이 좋은 옷 위에 화려한 갑주를 착용한 것으로 보인다.

송대 이후 중국 대륙에서는 검무는 소멸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의 검무는 신라의 어린 화랑에서 시작된 동자가면무였다. 고구려의 안악3호분 벽화의 행렬도에서도 검무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복식은 유고 형식으로, 맥수를 착용하기도 하였을 것이다.

통일신라 이후 당과의 활발한 교류로 인해, 당으로부터 검무가 수입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동자가면무 형식의 것과 공존하였다. 이후 고려시대에도 가면무 형식과 당 형식의 검무가 민간에서 전승되다가 조선시대에 가면무 형식이 소멸되고, 당형식의 검무가 우리나라화 되며 정착되어진 것으로 보이며, 이 때 치마·저고리 위에 반소매 옷인 괘자를 착용한 것으로 보인다.

조선 후기 19세기에 들어서 궁중연회에 편입되면서 광장이나 마당 등지에서 추던 검무가 대청마루를 무대로 하는 좁은 공간이 공연무대가 됨으로서 고상하고 우아하면서도 색기가 넘쳐흐르는 무용이 되었다. 이에 복식은 화려한 색상의 치마·저고리 위에 군장인 전모와 괘자, 전대를 하였으며, 괘자의 형태변화는 없다.

검무복식 구성과 색상의 변화는 약간씩 있다. 『己丑進饌儀軌』의 圖式에만 筒箇, 環刀, 藤鞭가 있고, 이후 등장하지 않는다. 『戊申進饌儀軌』부터는 金香袂袖와 紅色 裳이 추가된다. 掛子의 색도 紫色에서 鴉青色으로 변화한다. 그러나 기록에 나타난 옷의 구성과 실제 공연의 모습은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829년 『己丑進饌儀軌』 工令부터 홍초상이 추가되었으나, 진찬도병들의 그림과 비교를 하면, 裳을 착용하지 않았으며, 1948년의 무신진찬도병의 무인 중 두 명만이 裳을 착용한 것을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이루어져 온 조선 후기 검무 복식의 구성과 색상 등에 치우친 연구를 뛰어넘어 우리나라 검무의 연원과 발전·변화 과정, 변화 요인들을 밝혀 보려 한 것으로, 이후 무용학계와 국악학계와의 공동연구 등을 통하여 새로운 자료의 보강과 더불어 좀더 심도 있는 연구의 발판이 되리라 기대한다.

참고문헌

1) 王克芬 저, 고승길 역 (1991). 중국무용사. 교보문고, pp. 13-14.
2) 남후선 (1997). 검기무복식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5(3).
남미화 (2002). 조선후기 기록화에 나타난 검기무복식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채진영 (1985). 한국전통무용복의 문헌적 고찰.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윤광봉 (1982). 杜詩에 나타난 劍器舞考. 동악어문논집 16, pp. 9-31.
김운태 (1998). 한국 검무사 연구. 청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혜림 (1998). 한국 검무의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상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은영 (2002). 시대별로 보는 한국의 검무. 민족무용 2, pp. 119-136.
이경진 (2003). 조선시대 정치사회상에 나타난 궁중 검무의 변화에 관한 연구. 수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혁상 (2004). 朝鮮朝 劍舞詩의 一硏究.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3) 이경진 (2003). 위의 책, p. 12.
4) 남후선 (1997). 앞의 책, p. 443.
5) 王寧寧 外 2人 (2001). 圖說 中國舞蹈史. 杭州: 浙江教育出版社, p. 51.
6) 이민수 역 (2003). 孔子家語. 을유문화사, p. 117.
7) 文宗時, 詔以白歌詩 裵旻劍舞 張旭草書爲 '三節'.
8) 劉芹 (1993). 中國古代舞蹈. 臺灣商務印書館: 臺灣, p. 75.
9) 劉芹 (1993). 위의 책, pp. 75-76.
10) 王克芬 저, 차순자 역 (2002). 중국무용사. 동남기획: 부산, p. 49.
11) (1986). 국역 中國正史 朝鮮傳. 국사편찬위원회, p. 18.
12) 이병옥 (1993). 고대 한국무용사 연구. 경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 100.
13) 彭松 于平 (1991). 中國古代舞蹈史綱. 浙江美術學院出版社: 浙江省, p. 69.
14) 이경진 (2003). 앞의 책, pp. 12-13.
15) 신채호 저, 박기봉 옮김 (2006). 조선상고사. 비봉출판사, p. 230.
16) 이경진 (2003). 앞의 책, pp. 13-14.
17) 박두이 (1997). 반비의 원류와 변천에 관한 연구. 서울여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 21.
18) 신경섭 (2000). 한국의 鳥羽冠과 중국의 鶡冠 비교 연구. 服飾, 50(4), pp. 90-92.
19) 劍舞之戲 黃倡郎新羅人也 該傳年七歲入 百濟市中舞劍 倡郎因刺王 國人殺之 羅人哀之 像其容爲假面 作舞劍之狀至今傳之.
20) 閔周冕 저, 이석호 역 (1972). 東京雜記. 대양서적: 서울, pp. 318-319.
21) 정병호 (1996). 한국의 전통춤. 서울시스템주식회사 (DB자료).
22) 김말애 (1996). 韓·中·日 궁중 무용의 변천사. 서울: 경희대학교 출판국, pp.34-35.
23) 三國史記 卷五 新羅本紀五 眞德王 二年.
三國史記 卷六 新羅本紀六 文武王 四年 正月.
三國史記 卷三十三 雜誌二 色服.
三國遺事 卷四 義解五 慈藏定律.
24) 김정자 (1998). 한국 군복의 변천사 연구. 서울: 민속원, pp. 162-166.
25) 김말애 (1996). 앞의 책, pp. 46-66.
26) 이경진 (2003). 앞의 책, pp. 17-18.
27) 三國史記 卷6, 新羅本紀 第6, 문무왕4년.
28) 歐陽予倩 (1980). 唐代舞蹈. 上海文藝出版社: 上海.
29) 김영숙 편저 (1985). 韓國服飾史資料選集-上古·高麗篇. 東洋服飾硏究院, pp. 92-95.
30) 박두이 (1997). 앞의 책, p. 28.
31) 한국학중앙연구원-박성실 (2005). 조선후기궁중연향문화 권2. 민속원: 서울, p. 303.
32) 신경섭 (2000). 앞의 책, pp. 90-95.
33) 정병호 (1996). 앞의 책.
34) 김영희, 김매자 (1995). 한국무용사, 삼신각, pp. 174-175.
35) 김영희, 김매자 (1995). 위의 책. 삼신각, p. 48.
36) 王寧寧 外 2人. 앞의 책, p. 57.
37) 林巳奈夫 저, 김민수·윤창숙 역 (1996). 돌에 새겨진 동양의 생활과 사상. 두남, p. 108.
38) 土居淑子 (1986). 古代中國の畵象石. 同朋舍.
39) 王寧寧 外 2人. 앞의 책, p. 57.
40) 王寧寧 外 2人. 앞의 책, p. 82.
41) Zhou Xun, Gao Chunming (1988). *5000 years of Chinese costumes*, China Books & Periodicals, Inc. : Hong Kong, p. 71.
42) Zhou Xun, Gao Chunming. 위의 책, p. 100.
43) 黃能馥·陳娟娟 (1994). 中華服飾藝術源流. 高等教育出版社, p. 203.
44) Roderick Whitfield (1995). 敦煌. 예경, p. 69.
45) (1986). 高句麗古墳壁畵. 조선일보사, 도판215.
46) (1986). 한국복식도감 II. 한국방송사업단, p. 59.
47) 국립중앙박물관 (2002). 朝鮮時代 風俗畵. 국립중앙박물관: 서울, p. 162.
48) 고려대학교 박물관 (2001). 조선시대 기록화의 세계. 서울: 고려대학교박물관, p. 95.
49) 국립국악원 편 (1981). 韓國音樂學叢書 三 進饌儀軌. 傳統音樂硏究會.
50) 국립국악원 편 (1981). 韓國音樂學叢書 三 進饌儀軌. 傳統音樂硏究會.
51) 국립국악원 (2002). 조선시대 음악풍속도 I. 민속원, p. 184.
52) 국립국악원 (2000). 조선시대 진연진찬진하병풍. 태학사, p. 33.
53) 국립국악원. 위의 책, p. 105.

국립국악원 (2004). 조선시대 음악풍속도 II, 민속원.
국립중앙박물관 (2002). 朝鮮時代 風俗畵. 한국박물관회.
돈황연구원 저, 최혜원·이유진 역 (2001). 敦煌. 범우사.
董錫玖 外 (1997). 中國舞蹈藝術史圖鑑. 湖南教育出版社: 湖南省.
신명숙 (1988). 新羅 假面舞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王克芬 저, 차순자 역 (2002). 중국무용사-수·당·오대. 경춘사.

王克芬 (1991). **中國舞蹈發展史**. 南天書局有限公司: 台北.
윤지원 (2005). 中國 巾舞 服飾에 나타난 이국적 취향에 대한 연구. **服飾**, 55(8).
윤지원 (2006). 中國 胡舞服飾에 관한 연구. **服飾**, 56(3).
윤지원 (2007). **중국 무용복식 문화사**. 한국학술정보: 파주.
華梅 著, 박성실·이수웅 譯 (1992). **中國服飾史**. 경춘사.